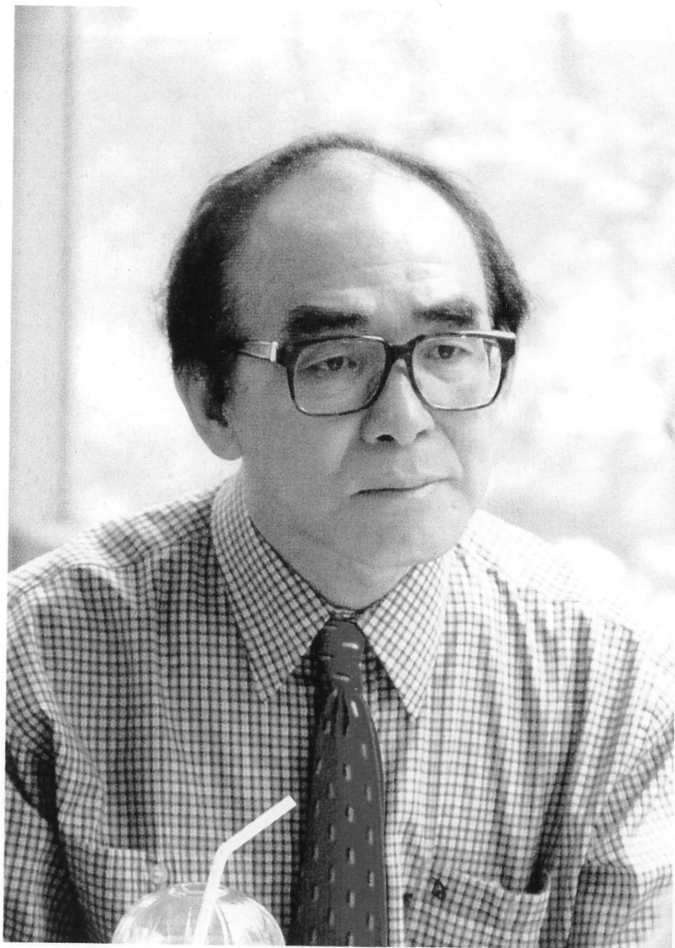




21세기 작곡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점은 없는가?

김규현(한국음악비평가 협회 회장, 서울신학교 교수)

다니엘 Zell(독일 작곡가, 서울대, 상명대, 성신여대 교수)

김규현(이하 김) : 먼저 한국 음대에서 작곡교육을 해본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곡교육의 의미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다니엘 Zell(이하 Zell) : 그 동안 서울대, 상명대, 그리고 성신여대에서 2년여 동안 학생들을 지도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중 대학의 시스템과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적인 혹은 제도적인 문제점 역시 들 수 있습니다. - 여러 문제 중 가장 큰 것은 서울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 사회구조적인 문제는 나이와 힘이 있는 혹은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의 경우, 제 생각을 언급하자면 변화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학교의 정책은 학생들에

게 자유를 주지 못하고 개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희박하게 만듭니다.

학교의 시스템을 비교한다면 한국의 어느 학교나 모두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스템의 주된 목적은 작곡을 교육 시키는데 있어서 아티스트로서 라기보다는 교육자로 혹은 이론가로 키우려고 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한국인들은 좋은 작곡가로 키우는 것 보다는 좋은 선생님이 되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좋은 선생님이란 학교를 위한 것이지 좋은 작곡가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듯 보입니다.

기초적인 실력에 있어서 학생들의 차이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일례로, 서울대 학생들은 기본적인 실력을 잘 갖추고 있

습니다. 그 만큼 대학 입학이 쉽지 않다는 것과도 일맥 상통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가르치는 점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볼 때는 모두들 비슷합니다. 문제는 모두들 왜 공부를 하는지 모른다는데 있습니다. 공부를 마친 후 무엇을 할지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한국에서 작곡가가 졸업 후 가질 수 있는 직업은 교수가 되는 길 이외에는 별반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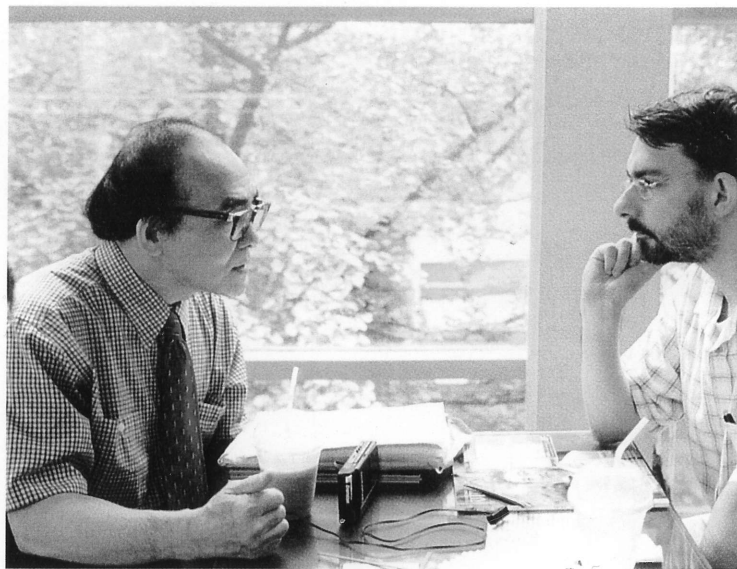
김 : 작곡교육은 몇 살부터 교육하는 것이 적합하고 무엇부터 가르쳐야 될까요?

젤 : 독일의 경우는 한국의 작곡 환경과는 많이 다릅니다. 독일의 경우는 대부분 혼자 공부합니다 그리고 늦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개인 교습은 아주 드뭅니다. 대학을 들어갈 때는 두 가지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의 경우는 저와 같이 피아노나 다른 악기로 대학에 들어간 후, 뒤에 작곡을 공부하게 되는 경우이고, 두 번째의 경우는 자신의 음악 외에 전공 공부를 마친 후 25세 혹은 그 이 후에 작곡공부를 시작합니다. 적어도 그 공부가 과연 자신에게 옳은지를 결정한 후에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조기 작곡공부로 자신이 갈 학교와 전공을 이미 결정하고 그 전공에 대해 생각할 여유도 없이 대학에 진학합니다. 그리고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 역시 너무 좁습니다. 바로 그러한 점이 독일과 많이 틀립니다.

조기 음악 교육에 있어서는 독일보다 한국은 더 나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젊은 연주자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곡에 있어서는 기악과는 다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작곡은 단지 훈련으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자신의 선생님을 그대로 닮아가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 점은 독일과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오로지 유럽 혹은 미국의 음악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음악의 전부이거나 중요하다고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 : 한국 음대의 작곡교육과 독일음대의 작곡교육의 차이나 장단점을 이야기 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양국 학생들의 수준차도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선생님이 생각하는 한국 대학의 작곡교육에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는지요? 개선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젤 : 현재 한국은 독일과는 달리 주어진 형태의 악기나 형식에 맞추어서 과제곡을 매 학기마다 제출하도록 교과 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제곡들은 어느 학교나 마찬가지로 주어



진 형식이나 장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벤션이나 푸가를 작곡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작곡가의 스타일을 모방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의 교육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더욱 자유로운 창작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도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물론 각 시대별 중요한 작품이나 작곡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과제를 빨리 마치고 홀로 할 수 있는 공부를 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바흐의 중요한 음악을 공부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곡으로 모방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김 : 한국 작곡 학도들의 작품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젤 : 한 학기 마다 매번 과제로 곡을 쓰고 학교 차원에서 틀에 맞추어서 연주하는 모습들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 자신이 그들만의 음악회를 계획하고 만들게 하고 싶습니다. 한 학교의 경우, 연주자들이 많은 연주비를 요구하는 바람에 연주를 망친 경우를 보았습니다. 리허설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서 제대로 작곡을 공부할 수 있을까요? 작곡을 하는 학생들이 연주자를 통해 돈을 떠나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하고 연주자 역시 그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 한국 대학의 현실입니다

저는 독일 칼스루에에서 공부했습니다. 그곳에는 어떠한 커리큘럼도 없었기에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곡을 쓰고 나면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은 기꺼이 연주를 해 주었습니다

다. 대학은 장소와 악기들 그 외 필요한 장비들을 빌려 주었고, 매 학기마다 서너 번의 연주회를 가지고 우리의 음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저는 단 한번도 연주자에게 연주비를 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작곡가의 작품을 연주했다는 점에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서양음악에 대해서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음악에 대한 교육과 문화적인 배경에 대해서도 함께 교육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이미테이션에 관한 공부 보다는 좀 더 왜 그러한 음악이 작곡되고 그러한 배경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음악은 변화에 있어서 상당히 느리고 도전적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변화에 있어서 가장 느린 나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같은 작곡가로서 도전하는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아티스트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이만방, 강석희 등 알려져 있는 작곡가들을 쫓을 필요는 없습니다. 선생님이라는 개념 보다는 동등한 작곡가로서 대해야 합니다. 한국의 문화적인 관습이 학생들을 자유로운 창작가로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유롭고 도전적인



정신이 이미테이션이 아닌 새로운 음악을 창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김 : 창작음악 교육의 주요 기능이나 그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는지요?

젤 : 제 생각에 저는 진부한 작곡가입니다. 저의 음악이 미래의 음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젊은 작곡가들은 저와 같아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했던 것을 답습하도록 가르치지 않습니다. 요즘은 경쟁도 심해졌고, 좋은 연주를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음악을 듣지 않습니다. 저의 목표는 이러한 요즘의 음악 경향에서 벗어나 저만의 음악을 가지고 대중에게 접근하고 싶습니다. 대중에게 접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 : 한국에서는 요즘 실용음악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젤 : 많은 학생들이 클래식 보다는 재즈, 팝, 영화음악 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듣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대에서 다섯 명의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중 두 학생이 팝뮤직을 공부했습니다. 그들은 현대음악에 대해서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즈와 실험적인 팝음악과 컴퓨터 음악을 공부시켰지만 과제 곡으로는 현대음악을 썼습니다. 학생들은 왜 작곡을 하는지 모릅니다. 작곡을 할 때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담아야 합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그만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힘든 일이죠.

김 :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좋은 작품이란 어떤 것이고 그 기준치를 어디에 둘 수 있을까요?

젤 : 제 생각에 좋은 작품이라고 얘기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위험합니다. 우리는 좋은 작품이 무엇인지 압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지겨울 뿐입니다. 규격에 맞추어지고 있는 작품들을 말입니다. 한국 내에는 제 생각에 서너 명 정도만이 정말 재미있고 새로운 작업을 하고 있는 작곡가라고 생각합니다.

김 : 작가의 전통이란 무엇이고 정체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젤 : 저는 한국음악을 공부하기 위해 12년 전에 이곳에 왔습니다. 요즘에 와서 한국 작곡가들 중 전통음악을 가지고 새로운 음악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저 한국적인 요소를 뽑아 사용하고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문고를 가지고 음악을 만들 때 이 악기를 가지고 새로운 음악을 만드느냐 아니면 음악에 악기가 들어가느냐 라는 두 가지의 차

이점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작곡가들이 한국의 전통을 새롭게 하는 것에 있어서는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작곡가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하고 동시에 새로운 구조와 요소의 사용이 위협하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는 한국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는 작곡가를 현재 보지는 못했습니다. 몇 작곡가는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전통을 찾으려는 중에 자신만의 작풍을 찾아가기도 하는데 그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이것은 보편성과 주관성 사이에 있는 일종의 게임이며 또 다른 새로운 흥미를 만들어 가기 때문이죠.

김 : 독일 작곡 학도들은 졸업후 주로 어떠한 분야로 사회 진출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독일의 작곡교육 과정이나 방법이 어느 면에서 다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젤 :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독일을 통틀어서 15개 정도의 대학에 작곡과가 있습니다. 각 대학에 두세 명의 선생님들이 있고 각 클래스마다 10명 혹은 10명 이내의 작곡학도가 있습니다. 매년 200여 명의 새로운 작곡과 학생들이 들어옵니다. 여러 나라에서 공부하러 오기 때문에 이미 그 200명도 많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너무나 틀립니다. 이미 작곡과 학생들은 포화 상태입니다. 작곡가라는 직업으로 보았을 때 사실 작곡과 교수들도 많은 경우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포화 상태에 있는 한국의 작곡과 학생들 중 대부분의 여자 학생들은 결혼하여 전업 주부로서 활동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한국에서는 또 다른 직업을 가지기 위해 다른 교육을 받게 됩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은 낭비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 있어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언급했지만 작곡교육에 있어서 교수와 학생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단절과 상급하달 식의 문화적인 전통은 자유로운 창작 의욕에 저하를 야기 시킵니다. 그러한 모습이 독일과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 독일 사회의 작곡가들은 사회적 지위나 인정도가 어떻게 됩니까?

젤 : 작곡가의 지위를 이야기 한다면 한국이나 독일이나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 역시 작곡가로 살아가는 방법은 어렵고, 모두들 작곡가로서의 삶이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독일은 곡에 대한 커미션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나 인정도를 생각할 때 한



국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아마도 작곡가로서가 아니라 교수라는 직업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듯 합니다. 독일에서는 작곡가라는 직업과 교수라는 직업적 개념에서 한국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그러한 상황은 아니지요. 소수를 제외한, 예를 들면 영화음악, 드라마 음악 그리고 팝음악 작곡가들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경우 독일의 작곡가들은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 : 앞으로 한국 작곡교육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 올리려면 어떤 노력과 제도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젤 : 좋은 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어떠한 특별한 준비는 없습니다. 작곡가로서 무엇을 원하던지 그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고 좋은 선생님을 찾아가고, 탐구하고 작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만 두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현재 한국의 많은 작곡과 학생들이 줄고, 남게 되는 작곡 학도들은 여러 가지 모습에서 새로운 면들을 찾아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 : 바쁘신데 장시간 감사했습니다. V

정리 · 윤승현(중앙대 음대 작곡과 겸임교수)